

독서감상문

- ▶ 도서명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
- ▶ 저자 다우치마나부
- ▶ 출판사 북모먼트
- ▶ 출판연도 2024.6.10.



- ▶ 부서 지방소득세과
- ▶ 직급 세무7급
- ▶ 성명 이현영

“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.”

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나는 나지막히 중얼거렸다.

유토도 중얼거린다.

“사회는 우리 스스로 만든다.”

유토는 다시 한번 ‘귀찮네. 정말’이라고 중얼거리며 자전거에서 내린 후 쓰러져있던 다른 자전거에도 손을 뻗어 한 대씩 일으켜 세워나갔다. 어떤 핸들은 무겁고 차가웠지만 조금이나마 사회를 알 것 같았다.

“안녕하세요. 주무관님 얼마 전에 종합 소득세를 납부했는데요.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 해야해야 할까요?” “제가 환급받아야할 세액이 있는데 얼마를 환급받을 지 알고 싶습니다.”

“당신 지금 뭐하는거야. 난 체납을 안하는데 체납고지서를 보내면 어떻게 해! 분명히 납부했다고 다시 살 펴봐!”

뜨거운 무더위가 한창인 8월 중순, 전화기에서도 열기가 난다.

‘그래 정신차리자’ 난 고개를 한번 흔들고는 어제 받았던 월급에 대해 생각하고는 다시 일을 시작한다.

“우린 결국 도넛을 만드는 거야”

책에서 부자 보스가 말한 문장이 자꾸 떠오른다.